

# 고군분투 광주FC '광주다운 축구' 보여줬다

상하이 하이강과 아챔리그 1-1  
동아시아 2위... 16강은 미뤄져  
이정호 감독 "아쉬움 많이 남아  
내년 더 좋은 선수 영입해야"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난다"며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2024시즌 마지막 경기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지난 3일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에서 열린 상하이 하이강과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스테이지 6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ACLE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한 광주는 4승 1무 1패(승점 13)의 성적으로 동아시아그룹 2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퇴장 호재 속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16강 진출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이정호 감독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 화가 난다. 꼭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쉬운 무승부였다.

이날 광주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터진 조성권의 슈팅을 시작으로 전반부터 상하이 하이강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전반 37분에는 기다렸던 골도 나왔다.

앞선 상하이 선화와의 홈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아사시의 골을 도왔던 허율이 주인공이 됐다.

상대의 실수로 공을 뉘어채면서 전개된 공격, 공을 보유한 허율이 박스 지역에서 상대 수비진에 봉쇄됐다. 허율은 상대 압박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선취골로 분위기를 가져온 광주는 후반 5분 만에 상대의 퇴장이라는 호재도 맞았다.

상하이 하이강 웨이 전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신창무가 그라운드로 넘어졌다. 이후 웨이 전이 발로 신창무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출혈이 발생했다. 주



지난 3일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에서 열린 광주FC와 상하이포트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 스테이지 6차전에서 광주FC 허율이 득점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의 일반적인 공세에 마음 급해진 상하이 하이강 선수들이 위험한 반칙을 이어갔고, 양 팀 벤치가 충돌하는 장면도 나왔다.

거칠게 전개된 후반전, 광주는 아쉽게 추가골 사냥에 실패했다.

오히려 후반 28분 김진호가 박스 지역에서 파울을 기록하면서 상하이 하이강에 페널티킥 주어져다. 페널티킥을 얻어낸 오스카르가 직접 키커로 나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골을 기록했다.

이후 두 팀은 승리를 위한 공방전을 이어갔지만

경기는 그대로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광주는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구단 재정 건전화와 광주시의회 의원 선거 등 약재를 받고 달려왔던 이정호 감독에게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시즌 최종전이 됐다.

이정호 감독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안일하게 플레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극적으로 경기를 진행한 게 아쉽다"며 "우리가 가진 스쿼드를 봤을 때 전반에 뛰는 선수와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

다. 내년 시즌에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ACLE 16강, 8강에 진출하더라도 우리 구단은 어려울 것이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했다.

한계에도 광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여준 이정호 감독은 혼신의 시즌을 보낸 선수들과 '12번째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힘든 시즌을 치렀지만 선수들은 칭찬해 주고 싶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경기도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로만 경기를 치르면서 대항한 경기를 치른 점에 대해 선수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며 "중국 원정 경기까지 와서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러 약재에도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광주는 ACLE에서는 '광주다운 축구'를 선보이면서 놀라운 2위로 2024시즌을 마감했다.

광주는 내년 2월 11일 산둥 타이산(중국)과의 원정경기에 이어 2월 18일 홈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과의 홈경기를 갖고 ACLE 리그 스테이지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비상계엄’에도 축구경기 해요?

전북-서울E 8일 승강 PO 2차전  
프로축구연맹에 문의 잇따라

"승강 플레이오프 어떻게 되는 거냐는 전화가 저한테만 열 통 넘게 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양승희 홍보팀장)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 '비상계엄 사태'에 전국민이 불안에 떨 4일 새벽, 프로축구 K리그 팬들의 머릿속엔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을 법하다.

K리그1과 K리그2(2부)의 정규리그가 모두 끝난 가운데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는 딱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다.

K리그1 10위 전북 현대와 K리그2 3위 서울 이랜드가 맞붙는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1차전에서 전북이 2-1로 이겼다.

두 팀의 운명을 가를 판권을 앞두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많은 팬과 프로축구 종사자들이 이 마지막 경기의 진행 여부를 두고 궁금해했다.

축구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선 '낮이냐가 경기 가능하지 않을까?', '계엄령인데 무슨 축구냐. 전북이 자동으로 잔류하는 거다'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는 관련 문의를 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다행히도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만약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승강 PO 2차전은 어떻게 됐을까? 답은 뚜렷하지 않다.

프로축구연맹은 물론 다른 4대 프로 스포츠 기구는 계엄을 가정한 리그 운영 방법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다. 역사에서도 드문 계엄을 고려한 '계엄 매뉴얼'은 프로 스포츠에 당연히 없다.

굳이 프로축구연맹 규정에서 계엄에 적용될 만한 것을 찾아보자면, 제30조 '경기중지 결정'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



1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서울 이랜드 FC와 전북 현대의 경기에서 전북 전진우(오른쪽)가 헤더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를 중지할 수 있다.

'불기행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를 규정한 제31조의 1항에서도 경기 취소 사유엔 천재지변 외에도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기행력적 상황,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언급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프로축구 출범 후 계엄은 처음이라 관련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경기 개최 여부를 정해왔다"며 "다만 대원칙은 계엄사 포고령에 경기 중단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상 개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마찬가지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 취소 조치'를 담은 KBO리그 규정 제8조가 계엄에 적용될 수 있다.

제8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홈 구단은 그 경기의 중지를 총재에게 요청해야 한다. 총재는 이 요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경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즌을 한창 치르고 있는 프로농구 KBL과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축구연맹 못잖게 긴장했을 조지이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리그 중단이나 연기 등에 관해 논의한다. 상황을 지켜보면 서둘러도 긴급회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하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스포츠 경기를 정상 진행하긴 어렵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경기장에 온집합 팬들이 순식간에 집회와 시위 세력으로 바뀌면 계엄사가 상황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체크 아웃 스윙 판독 시범...스트라이크 존 하향

KBO '한국형 피치클락' 확정  
투수판 이탈 제한 두지 않기로  
타자 타석당 '타임 아웃' 2회만  
주자 1루 3피트 라인 주로 확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형 피치클락'을 확정했다.

KBO는 또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스크라이크존을 조정하고 '체크 아웃 스윙 비디오판독'을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한다. 1루 3피트 라인 주로 확대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가 지난 3일 피치클락, ABS존 조정, 체크 아웃 스윙의 비디오 판독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2025 KBO 리그 피치클락 정식 도입 세부 규정 제정의 목적이 아닌 ▲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단축 ▲국제대회에서 피치클락 확대 적용 대비를 위해 마련됐으며,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메이저리그(MLB·2회), 대만프로야구리그(CPBL·3회)와 달리 투수판 이탈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타석 간 간격은 33초,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 없을 시 20초, 주자 있을 시에는 25초로 정했다.

타석당 타자의 타임 아웃 횟수는 2회까지 허용한다.

'투구 간격-주자 있을 시' 항목도 올 시즌 시범 운영했던 23초 보다 완화된 25초로 설정했다. MLB는 18초, CPBL은 25초를 적용하고 있다.

이닝 교대 시간과 투수 교체 시간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 현행 2분에서 2분 10초로 늘렸다. 대신 이닝 중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20초에서 2분 10초로 10초 단축했다.

◇ABS 스트라이크존 하향 조정

KBO는 상단 스트라이크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올 시즌 ABS 스트라이크존은 타자의 신장에 비해 상대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지만, 내년 시즌에는 상단·하단 모두 0.6% 포인트(신장 180cm의 선수의 경우 약 1cm)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25시즌에는 상단 55.75%, 하단 27.04%가 적용된다.

스트라이크 존의 중간면과 끝면, 좌우 폭 등은 올 시즌과 같다.

이번 조정은 기존의 스트라이크 존보다 ABS 존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리그의 타교투저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

한편 내년 시즌 적용되는 하단 27.04%는 MLB에서 시범 운영 중인 ABS존 하단 비율과 같다.

◇체크 스윙 비디오판독 퓨처스리그 시범 도입  
체크 스윙의 비디오판독은 KBO 퓨처스리그 일부 구장에서 시범 도입된다.

체크 스윙의 경우 타자가 투수의 투구한 공을 타격하려는 의도로 배트를 휘두르는 동작을 할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타자석 옆면 기준으로 KBO는 90도, 애리조나 교육리그 135도이다.

관련 규정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 KBO는 8월부터 일부 구장에서 체크 스윙 판독 카메라를 설치, 시범 운영해 적절성을 검토해 왔다. 11월에는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크스윙 쉘런'의 조사를 위해 현지 조사 및 분석도 진행했다.

이를 종합해 KBO 리그에서의 도입을 유보하고, 장비 설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퓨처스 구장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타자주자의 1루 3피트 라인 주로 확대  
KBO는 홈에서 1루 베이스 후반부 그라운드에서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뛰어오 했던 규칙을, 1루 페어지역 안쪽의 홈 부분까지 달릴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다.

주로 범위를 명확히 해 우타자가 겪던 불편함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올 시즌 개정된 부분이다.

단 잔디를 밟고 뛰어오 반드시 주자 아웃은 아니며, 심판원이 1루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규칙 위반 아웃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 경기 전까지 모든 구장의 1루 페어라인 안쪽의 너비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규칙 개정은 KBO 규칙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